

## 국어의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

**물음** 글을 쓸 때마다 자주 혼동하는 표기로 ‘어쨌든/어쨌든/어쨌던/어쨌던’이 있습니다. 기억을 해 두었다가도 다시 쓸 때마다 혼동이 되곤 합니다. 어느 표기가 바른지,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(조미라, 인천시 서구 가좌1동)

**답** ‘어쨌든’으로 적어야 합니다. ‘어찌하다’는 활용할 때 ‘ㅎ’이 탈락하므로 ‘어찌(어찌해)’, ‘어쨌든(어찌하였든)’이 됩니다. ‘어쨌든’은 ‘앞의 상황과는 관계없이’란 뜻으로 ‘-든’을 ‘-던’으로 쓰는 것은 잘못입니다. ‘-던’의 ‘-더-’는 회상을 나타내는 말로 과거의 일을 이야기할 때에만 사용할 수 있는데, ‘어쨌든’은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‘어쨌던’으로 적을 이유가 없습니다.

‘어쨌든’은 [어쨌뉘]으로 소리 나기 때문에 종종 ‘어쨌든’으로 적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입니다. 이 말은 ‘어찌했든’의 준말이기 때문입니다. 이와 비슷한 예로 ‘게 섰거라’를 ‘게 섯거라’로 잘못 적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. ‘게 섯거라’도 ‘게 서 있거라’가 줄어든 표현이므로 ‘게 섯거라’로 적어야 합니다.

**물음** “팔을 엇갈리게 마주 잡으세요.”에서 ‘엇갈리게’가 자연스러운 표현인가요?

(김은주,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)

㉔ ‘엇갈리게’보다는 “팔을 엇걸리게 마주 잡으세요.”처럼 ‘엇걸리게’를 쓴 표현이 더 자연스럽습니다. ‘팔, 다리 따위가 이리저리 서로 겹쳐 놓이거나 걸리다’를 뜻하는 말은 ‘엇갈리다’가 아닌 ‘엇걸리다’이기 때문입니다.

‘엇갈리다’는 ‘마주 오는 사람이나 차량 따위가 어떤 한 곳에서 순간적으로 만나 서로 지나치다’, ‘생각이나 주장 따위가 일치하지 않다’, ‘모순적인 여러 가지 것이 서로 겹치거나 스치다’, ‘서로 어긋나서 만나지 못하다’ 등의 의미로 쓰입니다.

- (1) ㄱ. 내가 그와 엇갈린 곳이 바로 이곳이었다.
  - ㄴ. 동업자와 이해가 엇갈린다.
  - ㄷ. 여러 생각이 엇갈려 무엇이 옳은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다.
  - ㄹ. 그와 나는 길이 엇갈려 만나지 못했다.

반면 ‘엇걸리다’는 ‘엇걸다’의 피동사로, ‘엇걸리다’는 ‘서로 마주 걸리다’, ‘팔, 다리 따위가 이리저리 서로 겹쳐 놓이거나 걸리다’의 의미로 쓰이거나 ‘노래 따위의 소리가 서로 어우러지다’의 의미로 쓰입니다.

- (2) ㄱ. 훈련병들의 총이 길가에 엇걸려 놓여 있다.
  - ㄴ. 팔을 엇걸리게 하여 옆 사람 손을 잡으세요.
  - ㄷ. 굵직한 남자의 목소리가 가냘픈 여자의 목소리와 엇걸려서 들려온다.

따라서 “팔을 엇갈리게/엇걸리게 마주 잡으세요.”에서는 ‘팔, 다리 따위가 이리저리 서로 겹쳐 놓이거나 걸리다’의 의미를 갖는 말이 와야 하므로 ‘엇갈리게’보다 ‘엇걸리게’를 쓰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.

**물음** 사전에 보니 ‘뭐하다’라는 말이 ‘무엇하다’의 준말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“너 뭐하고 있니?”라고 붙여 쓰는 것이 맞습니까?

(장순옥,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)

**답** 아닙니다. “너 뭐 하고 있니?”라고 띄어 씁니다. 문의하신 문장의 ‘뭐하다’는 ‘무엇을 하다(어떤 일을 하다)’에서 목적격 조사 ‘을’이 생략되고 ‘무엇’이 ‘뭐’로 줄어든 말입니다.

(1) 너 무엇을 하고 있니? → (너 무엇 하고 있니?) → 너 뭐 하고 있니?

반면 ‘뭐하다’는 형용사 ‘무엇하다’의 준말로 언짢은 느낌을 알맞게 형용하기 어렵거나 그것을 표현할 말이 생각나지 않을 때 암시적으로 둘러서 쓰는 말입니다. 주로 ‘거북하다’, ‘곤란하다’, ‘난처하다’, ‘딱하다’, ‘미안하다’, ‘싫다’ 등의 느낌을 나타낼 때 씁니다. 즉, ‘무엇하다/뭐하다’의 ‘무엇/뭐’는 모르는 사실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로 쓰인 것이 아닙니다. ‘무엇하다’는 ‘뭐하다’뿐만 아니라 ‘뭇하다, ‘멋하다’로 줄여서 쓸 수 있습니다.

(2) 가. 저 사람은 만나기가 좀 뭇한 사람이다.

나. 내가 가기가 좀 무엇해서(→뭇해서, 뭇해서, 멋해서) 그러는데 네가 다녀오너라.

다. 정 하기 무엇하면(→뭇하면, 뭇하면, 멋하면) 그만두려무나.

그런데 질문하신 ‘뭐 하고’는 ‘무엇을 하고 있는지’를 물어보는 문맥에서 쓰인 것이므로 아래의 예처럼 지시 대명사 ‘무엇’과 동사 ‘하다’가 연결된 구성으로 봐야 합니다. 따라서 ‘뭐하다’처럼 붙여 써서는 안 되고 ‘뭐 하다’처럼 띄어 써야 합니다.

(3) 저기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니?

**물음** ‘끼어지다(껴지다)’, ‘끼여지다’, ‘끼워지다’ 가운데 어느 것이 맞는 표현인지 알고 싶습니다.

(이세하,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)

**답** 세 표현 모두 맞춤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. ‘끼어지다(껴지다)’는 ‘끼다’에 ‘-어지다’가, ‘끼여지다’는 ‘끼이다’에 ‘-어지다’가, ‘끼워지다’는 ‘끼우다’에 ‘-어지다’가 붙어서 된 말입니다. 여기에서 ‘-어지다’는 피동의 뜻을 나타냅니다.

‘끼다’에는 ‘안개나 연기 따위가 퍼져서 서리다’라는 뜻의 ‘끼다<sup>1</sup>’, ‘끼이다’의 준말로서의 ‘끼다<sup>2</sup>’, ‘끼우다’의 준말로서의 ‘끼다<sup>3</sup>’ 등이 있으므로 ‘끼어지다’는 이들 세 동사가 피동의 뜻을 나타낼 때 쓰일 수 있습니다. 그러나 ‘끼다<sup>1</sup>’은 의미적으로 봐서 굳이 피동의 뜻을 나타내어 쓸 필요가 없으며, ‘끼다<sup>2</sup>’도 피동사인 ‘끼이다’의 준말이므로 ‘끼어지다’와 같은 중복된 피동 표현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. 반면 ‘끼다<sup>3</sup>’은 ‘끼우다’의 준말이므로 ‘-어지다’를 붙여 피동의 뜻을 나타내도 별문제가 없습니다. 아래의 (1ㄴ)과 (2ㄴ)에서처럼 ‘끼다<sup>1</sup>, 끼다<sup>2</sup>’에 ‘-어지다’를 붙여 쓰면 어색한 반면 (3ㄴ)에서처럼 ‘끼다<sup>3</sup>’에는 ‘-어지다’를 붙여 써도 자연스럽습니다.

- (1) ㄱ. 하늘에 구름이 끼었다. (○)  
     ㄴ. 하늘에 구름이 끼어졌다. (×)
- (2) ㄱ. 책가방이 전철문에 끼었다. (○)  
     ㄴ. 책가방이 전철문에 끼어졌다. (×)
- (3) ㄱ. 나는 문이 닫히지 않게 책가방을 전철문에 끼었다. (○)  
     ㄴ. 마지막 전철을 잡으려는 듯 그의 책가방은 전철문에 끼어졌다. (○)

그리고 ‘끼이다’는 ‘끼-’에 피동접미사 ‘-이-’가 붙어서 만들어진 피동사이

므로 여기에 다시 피동의 뜻을 나타내는 ‘-어지다’를 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. 그렇게 되면 불필요하게 피동의 뜻이 중복되기 때문입니다.

- (4) ㄱ. 반지가 손가락에 잘 끼인다. (○)  
 ㄴ. 반지가 손가락에 잘 끼여진다. (×)

마지막으로 ‘끼우다’는 ‘끼다<sup>2</sup>’의 사동사이자 ‘끼다<sup>3</sup>’의 본말입니다. 따라서 앞의 ‘끼다<sup>3</sup>’처럼 ‘끼우다’에 ‘-어지다’를 붙여 쓰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.

- (5) ㄱ. 나는 반지를 손가락에 끼웠다. (○)  
 ㄴ. 반지가 손가락에 끼워졌다. (○)

결국, ‘끼다’, ‘끼이다’, ‘끼우다’ 등에 ‘-어지다’가 붙은 꼴인 ‘끼어지다(껴지다)’, ‘끼여지다’, ‘끼워지다’는 모두 맞춤법에 어긋난 표현은 아니지만 ‘끼다<sup>1</sup>’, ‘끼다<sup>2</sup>’, ‘끼이다’ 등은 의미적으로 굳이 ‘-어지다’를 붙여 쓸 필요가 없으며 ‘끼다<sup>3</sup>’, ‘끼우다’ 등에는 문맥에 맞추어 ‘-어지다’를 붙여 쓸 수 있습니다.